

## 천운상속 효정봉헌식

천운상속 효정봉헌식은 참부모님의 은혜가 강력한 하늘의 영적 빛이 되어 우리 몸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령들을 분립해 주는 역사이다. 조상들은 지상과 영계에서 지은 죄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 받기 때문에 죄의 흔적과 기억으로부터 해방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참부모님께서 ‘성화식(聖火式)’에서 ‘봉헌식(奉獻式)’으로 변경해 주셨지만 그 의미와 은혜는 전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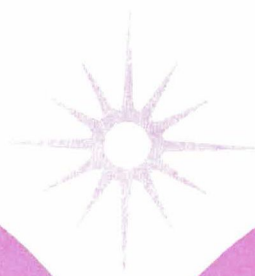
1년 동안 봉헌된 효정봉헌서를 모아 매년 5월 ‘철쭉축제 효정 청평특별대역사’와 10월 ‘추계 효정 천보특별대역사’에서 공식적으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봉헌하는 의식을 갖는데 이를 천운상속 효정봉헌식이라고 하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상의 죄의 흔적과 기억을 지워 주는 은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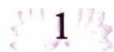


## 제6장

# 명절과 주요기념일







## 기원절과 성화절

### 기원절(2013년 천력 1월 13일)

참부모님께서 2010년 1월 1일 천기 원년을 선포하신 후 3년노정을 걸으시며 섭리적 최종목적을 완성·완결·완료하시고, 2013년 천력 1월 13일(양 2013.2.22)을 실체 천일국 출범의 날로써 기원절을 제정·선포하셨다. 같은 날 대한민국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천지인참부모님 천일국 즉위식과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식을 거행하셨다.

참부모님께서 2001년 1월 13일부터 2013년 1월 13일까지 12년 동안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1대에 걸쳐 아담이 실패한 가정적 기반, 예수님이 실패한 국가적 기반, 재림주님이 고생한 40년 기간 등 3대를 하나로 묶어 모든 것을 탕감복귀하여 천주적 천국이상이로서 해방과 석방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원절을 선포하셨다.

1960년 3월 1일 참부모님께서 아담 해와가 잃어버린 모든 조건을 탕감복귀

하신 후 부모의 날을 선포하셨다. 그 기대 위에 음력 3월 16일(양 4.11) 참부모님의 성혼식이 거행되었다. 2003년 2월 6일(양력) 천지부모님 천일국 개문 축복 성혼식과 천주천지참부모님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참부모님께서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말씀 선포 천주대회에서 “하늘은 벌써 2013년 1월 13일을 ‘기원절’로 선포해 놓았습니다. 실체적 천일국의 시발이요 기원이 되는 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기원절은 천지인참부모님 성혼의 완성단계이자 무형의 하늘부모님께서 지상에 실체를 쓰고 현현하시게 된 날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이상실현을 통해 실체 천일국이 정착되었고, 천지인참부모님의 사랑권이 지상과 천상에 완성·완결·완료되었다.

기원절은 참부모님의 천주적인 대승리로 말미암아 사탄을 중심한 죄악의 선천세계를 도말하고 영계와 지상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하늘부모님께서 태초부터 소망하셨던 이상천국을 창건하는 역사적인 출발일이다. 하늘부모님의 심정에 회귀되는 실체적 천일국시대의 출발로서 천리와 천도로 섭리를 경륜함으로써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통일과 행복을 누리는 태평성대의 새시대를 출범하는 날인 것이다. 이날을 맞아 천일국 국민은 누구나 천지인참부모님의 상속자, 대신자가 되어 종족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여 천일국 창건을 실현하는 주역이 될 것을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성화절(2012년 천력 7월 17일)

참아버님께서는 인류의 구세주·메시아·재림주·참부모로 탄생하시어 하늘

부모님의 창조본연의 이상을 완성하기 위한 섭리의 최종목적을 다 이루시고, 천일국을 창건하신 억조창생만승군황(億兆蒼生萬勝君皇)이시요 태평성대진성덕 황제(太平聖代眞聖德皇帝)로서 2012년 천력 7월 17일(양 9.3) 새벽 1시54분 HJ매그 놀리아국제병원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적하셨다. 이날은 참아버님께서 1920년 1월 6일(음) 하늘부모님의 참아들로 이 땅 위에 태어나신 후 성화하시기 까지 93년 한평생을 통하여 인류의 참부모님으로서 그 사명을 완성·완결·완료 하시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다 이루시고 하늘부모님의 영원한 사랑의 평화세계로 성화하신 천주사적인 승리와 영광의 날이다.

참아버님께서 2013년 1월 13일을 천일국 기원절로 선포하시고 하늘부모님의 나라를 창건하기 위해 살아오신 93년 생애를 마지막 봉헌하시는 기도 가운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세 번 반복하시며 지상에 남아 있는 축복가정들이 종족메시아로서 당신의 뜻을 받들어 천일국 창건을 위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하셨다.

2007년 2월 21일 참아버님께서 “내가 영계에 가면 모든 영인들을 최전방에 배치하여 혁명을 일으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참부모님께서 지상과 천상의 사랑으로 연결된 천일국 개문을 선포하셨다.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식은 2012년 천력 7월 29일(양 9.15) 오전 10시, 전 세계 전·현직 국가수반 및 평화지도자 300여 명을 비롯해 국내외 귀빈, 통일가 공직자와 식구 3만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심평화월드센터와 청평성지 전역에서 거행되었다.



## 8대 명절

### 하늘부모님의 날(1968년 천력 1월 1일)

하나님의 날은 1960년부터 1967년까지의 제1차 7년노정을 통하여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이 선포된 섭리사적 기대 위에 모든 탕감복귀의 기준이 실현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게 되었다.

하늘부모님의 사랑을 중심한 창조이상이 참부모님을 통하여 지상에 안착함으로써 인류역사는 비로소 하늘부모님이 직접 주관하실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참부모님은 1968년 1월 1일 오전 3시 하늘부모님과 인간과 만물의 소망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진 창세 이래 가장 기쁜 날로서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셨다. 인류 구원을 향한 섭리역사 속에서 이제껏 인류가 노력하여 이룩한 모든 내용들은 탕감 그 자체를 위한 것이므로 하늘부모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날을 전환점으로 인류의 모든 노력이 하늘부모님의 뜻을 위한 자체의 실적으로 맺어져 하늘부모님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었다.

하늘부모님께서 아담 해와를 축복하시고 개성완성, 가정완성, 만물주관완성의 3대 축복을 완성하기를 바라셨다. 그리하여 아담 해와가 완성하여 축복을 받으면 하늘부모님의 자녀로서 완성되는 기쁨의 날이자, 아담 해와가 남편과 아내로 서로를 모시고 살며 참사랑의 주인으로써 만물의 환영을 받는 주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날이다. 즉 같은 날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책정되어야 했다. 그러나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하늘부모님께서는 창조이상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참부모님께서는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을 복귀하고자 일평생을 바쳐 오셨다. 많은 역경 속에서 1960년 4월 11일 성혼식을 통해 인류의 참부모가 되셨다. 참부모님께서 1968년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날을 책정하셨다. 7년노정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직접주관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날이 책정됐다. 하나님의 날이 책정됨으로써 그 기간에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 역사시대에 잃어버렸던 모든 슬픔의 날들을 탕감하고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출발이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날을 시작으로 참부모님의 가정은 하늘부모님의 직접주관권에 들어가시게 되었고, 하늘부모님께서 지상에 현현하실 수 있는 실체가정이 실현되었다. 2010년부터 천력시대를 맞아 천력 1월 1일로 기념하고 있으며, 2013년 2월 10일 참부모님께서 참하나님의 날을 ‘하늘부모님의 날’로 명명하셨다.

## 참부모님 탄신일

(참아버님 1920년 1월 6일(천력), 참어머님 1943년 1월 6일(천력))

하늘부모님은 태초에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인간을 통해 소망하셨던 참자녀·참부부·참부모의 이상을 이루지 못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섭리역사를 이끌어 나오신 하늘부모님은 본연의 아담과 해와의 입장을 탕감복귀하기 위한 기대 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유대민족의 불신과 배척으로 뜻을 완수하지 못하고 재림주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님을 지상에 다시 보내시는 섭리를 해오셨다.

다시 오신 참부모님께서는 횡적인 부모의 자리에서 참사랑으로 일체가 됨으로써 하늘부모님의 실체 혈통을 이루시고 인류의 참된 조상이 되셨다. 참부모님 탄신일은 창조본연의 이상세계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뿌리내리게 한 역사적인 출발의 날로서, 인류의 메시아요 참부모님으로 지상에 현현하신 음력 1월 6일을 성탄일로 경축하고 축하하는 날이다.

참부모님께서는 일생을 바쳐 사탄의 혈통 속에 허덕이는 인류를 하늘부모님의 혈통으로 복귀하는 섭리를 펼쳐 오셨다. 하늘부모님의 천명을 받으신 독생자 참아버님과 독생녀 참어머님은 아담 해와가 실패한 인류의 참부모의 자리로 나아가 축복결혼식을 통해 사탄의 핏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여 하늘부모님의 혈통으로 복귀시켜 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참부모님의 성탄이야말로 인류가 진심으로 축배를 들어야 하는 고귀한 날인 것이다.



## 참부모의 날(1960년 천력 3월 1일)

참부모의 날은 천일국의 8대 명절 가운데 가장 먼저 제정된 명절로서 참부모님께서는 1960년 음력 3월 1일 거행된 참부모님의 약혼일을 그다음 해에 참부모의 날로 공식 선포하셨다. 참부모의 날은 인류의 조상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잃어버렸으며,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탕감복귀하지 못했던 참부모님을 재탕감복귀한 재림 메시아의 승리적 티전 위에서 하늘부모님과 온 인류와 만물세계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천주사적 기념일이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해와가 개인완성 후 하늘부모님의 축복 아래 결혼을 했더라면 인류의 참부모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조상이 타락함으로써 아담 해와는 인류의 타락한 조상이 되었다. 참아버님께서 2차 세계대전 후 인류의 참부모의 자리를 찾기 위해 복귀섭리노정을 걸어나오셨다. 그러나 하늘부모님께서 준비하신 기독교가 참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세계적 기반을 잃어버리셨다. 그로 인해 참부모님께서 십자가의 노정을 걸으시며 홍남감옥과 같은 고통을 감내하시며 직접 참부모의 기반을 닦으셨던 것이다. 이렇듯 참부모님께서는 여러 사생결단의 자리에서 영적·육적 승리를 이룩하셨다.

그리고 1960년 3월 1일(음력) 인류역사를 탕감복귀하신 승리적 기반 위에 청파동교회에서 참어머님과 성혼식을 올리셨다. 참아버님께서는 제3 아담으로 지상에 오셔서 인류의 참부모 자리를 찾으시므로써 참어머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셨다. 그 자리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어린양잔치이다.

성혼식 후 이듬해인 1961년 부모의 날을 선포하셨다. 1994년 참부모의 날로 명칭을 정하셨다. 하나님의 날, 만물의 날, 자녀의 날 또한 앞에 ‘참’자가 들어가게 되었다.

## 참자녀의 날(1960년 천력 10월 1일)

참자녀의 날은 1960년 음력 10월 1일 참부모님에 의해 선포되었다. 참자녀의 날은 참부모의 날을 제정한 토대 위에 선포된 것으로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참자녀를 가지신 그 기반 위에 모든 인류도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접붙일 수 있는 출발의 날을 의미한다.

참자녀의 날은 모든 인간이 참부모님을 통하여 중생·부활하여 하늘부모님의 3대 축복을 다시 받고 인간 책임분담을 완수함으로써 하늘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이뤄 드릴 수 있는 참된 자녀로서의 새 삶을 출발하는 날이며, 온 인류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여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부모로 모시는 형제자매로서 인류 대가족공동체인 천일국의 완성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축복의 날이다.

특히 참자녀의 날은 부모의 권한을 다시 찾는 날이요, 6천년 동안 인류 역사를 유린하던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타나는 날이다. 타락한 인간은 그날을 맞아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다. 참자녀의 날을 갖기 위해서는 그릇된 자녀로 하여금 그릇되게 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기원에서 하늘부모님을 붙들게 해야 된다. 하늘부모님을 찾게 되면 하늘부모님이 영광의 자리에 나가 기뻐하시게 된다. 하늘부모님이 기뻐하시게 되니 아들딸도 기뻐하게 되고 만물도 기뻐하게 된다.

## 참만물의 날(1963년 음력 5월 1일)

1963년 음력 6월 6일 참만물의 날을 선포하시고 하늘부모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천하 만물을 하늘부모님께 바치는 헌공식을 거행하셨다. 참부모님께 서는 이날 인간과 만물을 하늘의 것으로 세워 주신 하늘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송가(頌歌)를 부르셨다. 이후 참만물의 날은 음력 5월 1일로 조정되어 기념하고 있다.

참부모의 날과 참자녀의 날이 제정되어 참만물의 날이 선포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됨으로써 비로소 참부모와 참자녀가 하나되어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참만물과 환경을 하늘부모님께 복귀해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참만물의 날은 참부모, 참자녀, 참성지가 찾아 세워진 토대 위에 선포된 것이다. 참부모님께서서는 이날을 통해 하늘부모님은 온 백성과 온 만물, 온 세계를 주관하게 됨으로써 하늘부모님의 나라를 창건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셨다.

본래 인류가 참가정을 찾음으로써 만물세계가 해원되고 참된 주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었다. 창조원리에 의하면 하늘부모님이 인간에게 축복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식하여 모든 피조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모와 번식된 자녀가 있으면 그들 앞에 주관을 받을 수 있는 만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만물의 날을 맞이함과 더불어 가정을 중심삼고 만물을 먼저 하늘과 연결시키고 참된 가정을 이루어 만물과 완전히 하나된 다음에야 자기 자신을 하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만물은 사랑의 주인을 잃어버렸다. 로마서 8장22절처럼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가 된 것이다.

참부모님께서 참부모의 날과 참자녀의 날을 재정함으로써 아담의 가정을 중심삼고 잃어버린 만물세계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참만물의 날은 참부모와 참자녀가 만물을 주관하게 된 날인 것이다.

한편 참부모님께서 1963년 7월 26일(음 6.6) 서울 용산구 청파동 전본부 교회에서 제정하신 후 매년 음력 5월 1일에 만물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가질 것임을 밝히셨다.

### 천주통일국개천일(1988년 10월 3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중심삼고 세계 160개 국가가 모이게 됨에 따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양대 세계가 함께하는 외적 통일을 이루었다. 세계통일국개천일은 외형적 통일에 상응하는 내용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세계 120개 국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988년 양력 10월 3일 선포되었다.

세계통일국개천일은 참된 세계통일국가의 출범일이요 세계만국의 개천절의 기원이 되는 날로서, 이는 곧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개천일이다. 참부모님께서 이날을 기점으로 하늘부모님 국가를 출범하시고 내적·외적 가인 아벨을 통일시켜서 세계적으로 장자권을 복귀하셨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중심삼고 명실공히 천리의 도수를 맞추는 외형적인 모든 규격을 갖추었다. 하늘부모님께서 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에 천운을 상속해 주고자 하셨지만 한국에 준비된 인물이 한 명도 없었다. 이를 걱정하신 참부모님께서 한남동에 식구들을 불러 올림픽을 시청하시며 밤낮으로 기도정성을 올리셨다. 하늘부모님께서 대한민국에 내리신 모든 축복이 무사히 전

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이다.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 참부모님께서 120개국의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제3세계와 공산권에서 참석한 선수들에게 옷가지와 여러 물품을 기부하라고 지시하셨다. 서울올림픽으로 가인을 대표하는 공산세계의 2세들과 아벨을 대표하는 축복가정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에서 하나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또한 참자녀님께서 올림픽 선수 대표로 참석함으로써 참자녀님과 선교사들을 통해 내적 가인 아벨의 화합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세계적 기반 위에 장자권을 복귀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다.

10월 3일은 대한민국 개천절인데, 4321년째가 되는 해(1988년)이다. 개천절이란 하늘이 열리는 때라는 말이다. 건국일이라고 하지 왜 개천절이라고 했을까? ‘개’ 자가 ‘열 개(開)’ 자이다. ‘천’ 자는 ‘하늘 천(天)’ 자이다. ‘하늘이 열리는 절기’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절기인 이 절기를 타서 개인적 문이 국가적으로 열렸던 것을 세계적 문까지 열어야 한국의 운세는 세계로 안팎으로 굴러가는 것이다. 2004년 10월 3일 참부모님께서 ‘천주통일국개천일’로 명칭을 바꾸시며 왕권복귀시대를 공표하셨다.

### 하나님축복영원선포의 날(칠일절, 1991년 7월 1일)

참부모님께서 1991년 7월 1일 오전 7시 ‘하나님 축복영원 선포식’을 한남국제연수원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의 간부 등 200여 명의 중심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하시고, 이날을 칠일절로 명명하셨다. 이날은 거짓 부모로 출발한 인류 역사를 탕감복귀하기 위한 하늘부모님의 섭리 가운데 1991년 6월 30일을 전환점으로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역사적 모든 싸움과 고통과 원한



이 해소된 기념비적인 순간이었다.

참부모님은 칠일절을 기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심정권을 중심하고 자유세계와 공산세계, 모든 종교권과 정치권이 일치되어 장자권과 부모권 그리고 왕권을 복귀하는 기대가 조성됨으로써 가인권의 전체 해방과 통일을 실현하는 조건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셨다. 칠일절은 축복가정들이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참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아 천일국의 실체적 창건을 위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섭리사적 기념일로서,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지상의 모든 인간들을 천일국의 백성으로 복귀시켜야 할 사명이 부여된 날이다.

특히 칠일절은 종적·횡적 8단계의 복귀섭리를 완성하신 참부모님께서 승리하신 참부모님의 사랑권을 축복가정에게 상속시키는 섭리를 시작하신 날이다. 1991년 1월부터 6월까지 6천년의 인류역사를 상징하는 6수를 복귀하셨다. 천주적 3권 복귀의 기준인 장자권·부모권·왕권을 복귀함으로써 참부모님께서 하늘부모님의 직접주관권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참부모님께서 하나님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제7일을 '하나님축복영원선포일'로 명명하셨다. 이로 인해 하늘부모님의 영원한 축복이 지상에 내려지게 되었다. 이 승리로 말미암아 참부모님 앞에 그 어떤 원한도 없이 참사랑을 중심삼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칠일절을 선포하심으로써 부모의 책임시대가 끝나고 자녀의 책임시대가 시작되었다고 공표하셨다. 자녀책임시대는 축복가정이 신종족메시아로서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받는 시대를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을 '종족메시아의 날'로 선포하시기도 하셨다. 칠일절의 선포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모든 축복가정들이 신종족메시아 활동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길 바라셨다.

참아버님께서 이날이 역사적 전환기라고 말씀하시고 아담의 타락으로 잃

아버린 장자권을 복귀함으로써 천사세계가 아담이 성숙할 때까지 양육해야 했던 그 본연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강조하셨다. 그리고 영계와 육계는 완전히 정통의 길로 환원하여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늘부모님의 승리와 참부모의 영광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밝히셨다.

### 천지부모천주안식권 선포의 날(칠팔절, 1997년 천력 7월 7일)

참아버님은 1997년 음력 7월 7일 7시 7분 7초에 구리 중앙수련원에서 전 세계의 국가메시아 및 한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지도자들, 그리고 식구들을 포함한 7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지부모천주안식권’을 선포하시며, 참아버님 연세 77세를 더해 7수가 8번 반복되는 이날을 칠팔절이라 명명하셨다. 참부모님은 이날을 선포하시며 하늘부모님이 지상에서 안식하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셨다. 칠팔절이 선포됨으로써 가정적 기반·종족적 기반을 연결시키는 세계 대축복의 때가 도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참부모님은 이 기반 위에 360만쌍, 3600만쌍, 3억6000만쌍 축복을 성취하여 사탄의 혈통을 근절시키고자 하셨다.

칠팔절은 종적인 하늘부모님(천주부모)과 횡적인 천지부모가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전통을 상속받은 인간과 그 가정 안에 임재하실 수 있는 안식권의 조건이 갖추어진 섭리사적 대전환점이 된 뜻깊은 기념일이다. 모든 축복가정들에게 이날을 ‘통일가의 명절 중의 명절’이라고 말씀하신 참부모님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야 한다.

특히 세계적인 완성단계의 축복식인 360만쌍 축복식의 승리를 통해 하늘부모님의 천주안식권을 선포하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으며, 하늘부모님



께서 직접 주관하실 수 있는 때가 도래하게 됐다. 개인에서부터 세계의 끝, 천상세계, 하늘 끝까지 갔다 왔다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해방권을 선포한 날이 칠팔절이다. '천지부모천주안식권 선포의 날'이다. 역대의 모든 조상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을 참부모가 세계적 조상을 완성하여 다시 1대, 2대 편성해서 비었던 천국을 한꺼번에 꼭 채우는 것이다. 그런 후 180도 뒤집게 되면 사탄이 없어지게 되므로 자유해방 천국에서 하늘부모님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 3 주요 기념일

#### 참부모님 성혼일(1960년 천력 3월 16일)

하늘부모님은 타락한 아담 해와 이후 예수님을 거쳐 재림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과정의 승리적 탕감복귀 토대 위에서 본연의 아담과 해와를 찾으시고 1960년 천력 3월 16일 세계적이며 천주적인 성혼식을 거행하심으로써 하늘섭리의 심정적 기원이 되는 참가정이상을 출범시키셨다.

하늘부모님은 재림하신 메시아를 중심삼고 1945년 이후 1960년까지 소생 구약시대와 장성 신약시대의 기준을 승리적으로 넘으시면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던 장성기 완성급을 탕감복귀한 기대를 마련하시고, 120개 교회기반을 통한 통일종족을 편성하시어 천주적 성혼식을 갖게 되었다.

인류의 메시아요 참부모님의 자리에서 오신 참아버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참어머님은 3대(외조모, 모친, 참어머님)에 걸쳐 하늘부모님 앞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길을 걸어 나와 사탄의 참소권을 극복하고 승리한 혈통을

갖게 되었으며, 해와로 말미암은 죄악의 세계를 당신의 한 생애로 총탕감복귀 할 것을 결심하시며 참신부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었다.

### 천지부모님 천일국 개문 축복성혼식과

### 천주천지부모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2003년 천력 1월 6일)

2003년 천력 1월 6일(양 2.6) 천주청평수련원(HJ천주천보수련원)에서 천지부모님 천일국 개문 축복성혼식과 천주천지부모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이 거행됐다. 이날은 참부모님의 83세, 60세를 맞는 탄생의 날임과 동시에 천주천지부모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을 거행하는 역사적인 전환의 날이다. 1960년 참부모님의 성혼으로 시작된 축복결혼식은 하늘부모님의 인류 구원섭리의 결산이다.

하늘부모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염원은 참부모님의 성혼과 더불어 출발된 축복결혼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천지부모님 천일국 개문 축복성혼식을 함으로써 천일국 백성으로 입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날 참부모님은 온 인류가 천주를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천일국 백성이 될 것을 당부하셨다.

같은 날 축복성혼식을 거행하시고 2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천주천지부모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을 거행하셨다. 축복가정왕 즉위식을 통해 종족·민족·국가·세계 그리고 천주의 왕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기반을 세우셨다. 6천년 복귀섭리의 결과물이자 천일국시대의 실체기반을 이룩하신 것이다. 이를 통해 참부모님께서 탕감복귀를 통한 복귀섭리를 완료하셨다. 이날을 기점으로 하늘부모님의 고향인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셨다.

## 하늘부모님 왕권즉위식(2001년 1월 13일)

참부모님께서는 2001년 1월 13일 오전 7시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 홍진님을 중심한 영계에 계신 네 명의 참자녀님, 지상의 참자녀님, 5대 성인가정, 한국, 일본, 미국의 중심식구 등 천주적 대표성을 가진 1만2천여 명의 식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 왕권즉위식을 집전하셨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함으로써 기독교문화권이 세계를 통일하게 되었다. 이 기반을 중심삼고 천주교와 개신교가 하나된 자리에서 기독교문화권을 대표하여 오시는 재림주님을 맞았더라면 그때부터 통일천하의 운세를 받아 1945년부터 7년 후인 1952년에 통일천하를 이루어 그때 하나님 왕권즉위식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한 것을 56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참부모님이 탕감복귀하심으로써 지상과 천상천국의 해방권을 갖춰 2001년을 중심삼고 3000년을 향해 출발하는 연두에 하늘부모님과 일체됨을 의미하는 13수의 날을 정하고 하나님 왕권즉위식을 거행하였다. 이로써 하늘부모님은 당신의 권한을 행사하여 피조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본연의 왕권을 갖게 되었다.

참부모님께서 참가정을 찾으심으로써 장자권, 부모권, 그리고 왕권을 복귀하여 하늘부모님께 돌려드리셨다. 이를 통해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늘부모님의 왕권을 되찾아 지상과 천상에 천일국을 선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셨다. 이 모든 기반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왕권즉위식을 거행하셨다.

왕권즉위식을 통해 하늘부모님께서 지상과 천상의 주권을 되찾으셨고, 이 날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 완성인 천일국 기원절 13년 노정이 시작되었다. 13년 노정을 시작하시며 “천일국 국민은 순결한 하늘혈통을 상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천일국 국민은 심정과 인권을 유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천일국 국민은 공금을 유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천일국 국민은 참부모님 말씀을 혼동·실천·전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천일국 4대 헌법을 공표하셨다.

하나님 왕권즉위식을 준비하기 위해 참부모님께서는 해양권과 지상권, 그리고 천주권을 하늘부모님께 복귀해 드리셨다. 2000년 9월 26일 삼시대 대전환 사위기대 입적 통일축복식이 거행되었다. 왕으로 즉위하신 참부모님의 권한으로 천국입적이 가능해진 것이다.

1998년 6월 13일 3억6천만쌍 1차 축복식에서 참부모님께서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들과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똑같이 축복해 주셨다. 성인과 죄인을 똑같이 축복해 주심으로써 영계와 지상의 화합을 이루시고 지옥을 철폐하셨다. 이어서 2000년 8월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참부모님께서 모든 국경의 철폐를 선포하시며 인류가 천국으로 입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다.

### 애송일(1984년 1월 2일)

애송일은 참부모님께서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을 중심하고 인간의 책임분담을 완성한 기준의 사랑권을 이룸으로써 사망권을 이기신 위대한 기념일이다. 애송일은 참부모님 당대에 있어서 사탄이 가정권을 중심하고 침범해 들어오는 사망권을 참사랑으로 막아내신 것을 경축하는 날이다.

참부모님께서 홍진님 운명 직전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통일식을 거행하셨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같이 지상에서 참부모님의 사랑받는 아들을 제물대에 세워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영적 세계의 승리적 판도를 만드셨다.

승리하신 영적 세계 기반 위에 참사랑으로 육적 실체권을 이룬 부자관계의



천국이념을 연결시킴으로써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다리를 놓으셨다. 홍진님의 성화를 통해 영계와 지상을 붙들고 사랑의 부활권을 선포하고, 홍진님이 성화하신 다음날인 1984년 1월 3일 오전 4시, 참부모님께서 미국 벨베디아수련소에서 애승일을 선포하셨다.

애승일은 홍진님과 참부모님께서 하늘부모님께 보여주신 절대적 사랑의 기준으로 죽음의 영역이 복귀된 날이다. 홍진님께서 참부모님과 인류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친구 대신 영계로 가셨다. 참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으신 슬픔을 극복하시고 하늘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심정으로 참부모님을 대신하여 홍진님을 영계로 보내셨다. 사랑의 대사로 영계에 가신 홍진님을 통해 사탄의 주관권 아래 있던 죽음을 극복하고 하늘부모님의 사랑권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애승일을 통해 처음으로 성화식이 거행되었으며, 홍진님께서 지상과 천상을 자유롭게 오가며 섭리를 지원하게 되셨다.

특히 1984년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85년 8월 15일까지의 40년 광야노정의 마지막 3년 중 2년째에 접어드는 해였다. 2년째에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아신 참부모님께서 1983년 12월 14일부터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물리치기 위해 한국 8대 도시에서 승공궐기대회를 주관하셨다. 이를 통해 이듬해인 1985년 승리기반을 만들고자 하셨다. 이 기간에 세계적 가나안을 복귀하기 위해 참부모님과 하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음에도 몇몇 신도들이 참부모님의 가르침과 하나되지 못하였다. 참부모님께서 대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음에도 연말이 다가와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며 준비를 미뤘다. 이것이 사탄의 침범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승공궐기대회를 통하여 승리했기 때문에 사탄이 참아버님을 더 이상 침범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



로 한국에서 승리를 거두는 동일한 시각에 홍진군을 희생의 제물로 요구했던 것이다.

홍진님은 둘째아들로 태어나 아벨의 입장에서 참부모님께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다. 12월 23일 마지막 광주 승공궐기대회에서 강연하는 시간에 미국에서 홍진님에게 자동차 사고가 난 것이다. 홍진님은 함께 차를 탔던 형제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대신 희생하셨다. 참부모님께서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하늘부모님을 향한 절대적 사랑의 기대를 만드셨다. 자녀의 결혼식에 자식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부모처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홍진님을 보내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세우심으로써 너무도 젊은 나이의 아들을 보낸 부모의 비통한 심정을 극복하셨다. 이 기반 위에 애송일을 선포하신 것이다.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창립기념일(1954년 5월 1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1954년 5월 1일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을 지상과 천상에 온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시 성동구 북학동, 지금의 중구 신당동 391-6번지에서 창립되었다. 참아버님은 불신한 기독교와 국가지도자들을 대신해 많은 정성을 들이면서 재출발을 위한 믿음의 기대를 세우셨다. 친히 섭리적 아벨의 사명기준을 찾아 세우신 것이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수천 개로 갈라진 기독교를 성령을 중심삼고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이상으로 세워졌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새로 설립된 아벨 입장의 통일교회와 가인 입장의 기독교가 하늘부모님을 중심삼고 하나 되었더라면 미국과 한국이 화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가나안으로 가

는 문이 열리고 복귀섭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배하에 한국 기독교는 아벨 교회와 가인 교회로 분리되었다. 아벨 교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한국 기독교의 지하운동을 이어갔고, 가인 교회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굴복하여 살아남기 위해 신사참배 및 천왕 숭배를 이어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기독교는 참아버님과 절대적으로 하나되어 한국을 통합하고 미국까지 하나로 만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아벨 국가가 참부모님과 하나되지 못하고 오히려 참아버님을 핍박하면서 하늘부모님의 섭리가 지연되고 말았다. 또한 참부모님께서 잃어버린 기반을 되찾기 위해 탕감복귀노정을 걸어가셔야 했으며, 이로 인해 공산당이 통치하던 북한의 홍남감옥에 끌려가 투옥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다.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홍남감옥을 탈출하신 참아버님께서는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최남단 부산에서 200여 명의 신도들을 복귀하신 터전 위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출범시켰다.

1994년 5월 4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독교 신령운동은 참사랑의 실체인 참부모님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적 메시아 기준을 정착시킴으로써 국가, 세계, 천주로 출발하는 모델이 되었다. 모든 타락한 가정은 본연의 아담가정을 탕감복귀한 천주적 모델과 하나되어 타락한 세계의 아담 혈통권을 넘어 한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세계 대가족주의를 실현함으로써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과 목적을 완성해야 한다.

### 쌍합십승일(2004년 5월 5일)

참부모님께서는 2004년 5월 5일 전남 여수 청해가든에서 쌍합십승일을

선포하면서 이전의 시대를 선천시대, 이후 시대를 후천시대라고 선언하셨다. 쌍합십승일은 하늘과 땅이 바뀌고 상하·전후·좌우가 바뀌는 때이며, 어두운 악의 세계가 사라지고 광명한 선의 세계를 되찾을 수 있는 날이라고 설명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종적인 5와 횡적인 5가 합하여 10이 만들어진 날로서, 갈라진 하늘땅이 하나되고 모든 쌍쌍이 하나되어 타락으로 인한 분열과 투쟁으로부터 해방과 석방이 이루어짐으로써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합한 사랑의 승리의 날이라고 설명하시며, 이날을 쌍합십승일이라고 선포하셨다. 참부모님을 통하여 왼손으로 선천시대를 붙들고 오른손으로 후천시대를 붙든 후 한바퀴 돌아섬으로써 좌 5와 우 5가 합하여 온전한 10이 되듯이 온 세상이 사랑으로 하나됨으로써 쌍합십승이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하늘과 땅, 인간과 만물, 선천과 후천, 음과 양,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화합과 통일을 완성해야 될 시대가 후천시대임을 만천하에 공표하셨다. 타락의 후에 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늘의 섭리의 뜻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후천시대로 명명 선포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역사상 전무후무한 귀한 천운의 시대를 열어 가면서 하늘은 이제 우리에게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절대가치적 삶을 살라는 천명을 내리셨다.

쌍합십승일은 4월 19일 제44주년 참부모의 날을 맞아 안착시의의 날(안시일)을 제정하셨다. 2004년 4월 참부모의 날 44주년으로 숫자 4가 네 번 반복되는 섭리적 숫자를 복귀함으로써 4대 심정권에 들어가셨다. 4를 4번 곱하면 16이 되는데, 이는 아담 해와가 16세에 잃어버린 4대 심정권을 완전히 탕감 복귀한 조건을 세운 것이다. 쌍합십승일 선포로 7일 간격으로 지켜오던 성일

이 8일 간격으로 지키는 안시일로 바뀌게 되었다.

### 천주평화의 왕 참부모님 천정궁 입궁 대관식(2006년 6월 13일)

제1, 2, 3 이스라엘에서의 승리적 토대 위에 참부모님께서는 2004년 8월 20일, 선문대학교 광장에서 5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4 이스라엘국의 출발을 선포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늘부모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시대를 열어 주신 것이다. 참부모님께서는 위와 같은 종적인 하늘부모님의 왕권을 모든 씨족과 민족, 국가, 세계로 확장하는 횡적인 의식을 하도록 말씀하셨다. 그래서 2004년 12월에는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평화의 왕 대관·봉정식을 해 올렸던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2005년 2월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 천주적인 즉위식을 거행하셨다. 그리고 2006년 천주평화의 왕 참부모님 천정궁 입궁 대관식과 더불어 천주평화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다.

즉, 참부모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부모님의 나라를 세우고 만왕의 왕으로 즉위해야 했던 섭리가 제1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을 다시 탕감복귀하여 만왕의 왕 대관식을 거행하셨다. 이스라엘 나라 현지에서 모든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왕의 왕의 자리에 모시고 대관식을 거행하였으며, 미국에서 또다시 평화의 왕 즉위식을 거행한 후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한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시카고에서부터 교회의 십자가를 내리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하늘을 대신한 예수님과 땅의 참부모님을 대신한 홍진님을 중심으로 영육계가 분립된 것을 연결시켜 전 영계와 육계, 나라와 교회가 하나된 자리, 그리고 제2 이스라엘 왕권을 중심한 기반 위에서 참부모님께 드리는 대관식을 가



졌다. 참부모님께서 하늘과 땅의 입장인 상·하원 중심한 대관식과 즉위식을 거행함으로써 예수님이 로마 원로원에서 만왕의 왕을 선포하지 못하고 지상·천상 일체권을 이루지 못한 것을 탕감복귀하여 천정궁 입궁 대관식을 갖게 되었다. 가인적 혈족으로 엮어 나온 인류역사를 메시아를 중심으로 탕감복귀하여 민주와 공산 두 세계를 하나의 자리로 끌어올려 모든 종파 관념, 국가 관념을 극복함으로써 하늘부모님도 본연의 자리, 아담 해와도 본연의 자리, 가인 아벨도 본연의 자리, 천사장도 본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섭리로서 천정궁에서 천주사적인 대관식이 거행되었다.

참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 왕권이 수립됨으로써 하늘부모님께서 주인의 자리에 서시어 통치를 하게 된다. 모든 것을 하늘부모님 뜻을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올바른 판단과 운동이 일어난다. 하늘부모님의 왕권을 대신한 만왕의 왕이 실제 중심이 되어 영육 일체권 기반 위에서 천도와 천륜을 중심삼고 전 세계가 초월적 자리에서 하나의 본향, 하나의 주권, 하나의 조국, 천일국을 창건해야 한다.

대관식 개회식은 신천신지를 재창조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단계-빛의 재창조** : 성화 채화, 봉송, 점화, 8일간 천정궁 밝힘

**제2, 3단계-바다와 육지 재창조** : 12대륙의 성토 성수 봉헌, 합토 합수 후 재분배

**제4, 5단계-동식물 재창조** : 천일국 국화인 장미와 백합을 12대륙 배부, 국조는 학

**제6단계-인간 재창조** : 천일국 국민 서약식, 서약 맹세문을 풍선에 담아 날려보냄

**제7단계-참석자 다짐** : 하나의 주권, 국민, 국토와 문화를 형성한 영원한 태

평성대의 평화왕국 창건 약속하고 축도하심

마지막으로 천정궁 입궁식, 대관식 휘호를 하사하시고 6월 6일부터 14일  
까지 8일 동안 잔치를 치르셨다.

6월 13일에는 참부모님께서 천상천하에 천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실천궁행해야만 할 천도적 차원의 기본 의무와 사명 7가지를 선포하셨다.

첫째, 여러분은 이제부터 종적 참부모 되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여러  
분의 가정에서 3대권을 이루어 살며 4대 심정권을 완성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종적인 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어떤 경우에도 하나로 통일하여 살아야 할 것  
이다. 본인도 일찍이 하늘 길을 결심하면서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이주관  
완성하라!’는 표어를 걸어놓고 비장한 각오로 출발했다.

셋째, 천일국 국민 여러분, 영계는 벌써 통일이 끝났다. 문제는 육신을 쓰고  
사는 지상계의 인류이다. 죄악과 환란의 도탄 속에서 허덕이는 그들도 모두  
여러분의 형제자매이다. 이들을 바르게 교육해 천일국 백성으로 환원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

넷째, 여러분의 일생은 어머니의 복중에서 10개월, 지상계에서 공기를 호흡  
하며 한 백년, 그러고서는 영원한 천상세계에서 영생(永生)하도록 창조되었  
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는 복중에서의 준  
비가 절대로 필요하듯, 여러분의 지상생활은 다음 단계의 삶인 영계의 삶을  
위해 철저한 준비의 삶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천일국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데는 백성의 힘이 절대적 필요요건이  
라는 점이다. 이제 여러분은 선천시대의 잔재인 이기적 개인주의의 탈을 미련  
없이 벗어던져야 한다. 하늘로부터 소유권 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



든 소유권을 일단 하늘 앞에 봉헌하고 소유권 환원식을 통해 돌려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여섯째, 사랑하는 천일국 시민 여러분! 후천개벽의 시대는 인간 타락으로 잃어버린 창조본연의 이상세계를 다시 찾아 세우는 시대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주만상, 즉 자연환경도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데는 절대필요한 조건이다. 인간과 자연은 사랑의 주체와 관리의 대상으로서 서로 조화 속에서 공명권을 이루어 살게 되어 있다.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곱째, 천지개벽의 후천시대는 분명히 하늘과 참부모님께서 개문하여 주셨다. 그러나 이 복되고 영광된 시대를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

### 참부모님 천주승리 축하 선포(1999년 6월 14일)

참부모님께서는 하늘부모님을 해방하고 천주를 해방하고 인류를 해방하고 사탄까지도 해방된 자리에서 이상적인 사랑의 주권을 수립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셨다.

1999년 5월 14일 오후 1시 15분 브라질 판타날 아메리카노호텔에서 천주해방을 선포하고, 5월 30일에는 미국 벨베디아에서 동서양(지구성)승리 축하 선포를 한 그 기반 위에 하늘땅을 대표한 참부모의 승리권을 중심삼고 승리환영 선포를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시점을 맞이했다.

판타날을 중심삼고 맨 높은 데에 하늘부모님의 뜻을 연결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1998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특별한 정성을 들이면서 그 기반 위

에 금년(1999년) 5월 14일 천주해방 선포가 있었다.

그다음에 부모님이 미국에 돌아오신 날을 중심삼고 5월 30일 벨베디아에서 참부모님 동서양(지구성) 승리축하 선포일을 설정함으로써 획적인 입장이 다 닦여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적인 이 선포(참부모님 천주승리 축하선포)라고 하는 것은, 하늘부모님이 창조한 세계 앞에, 근심을 벗어나 에덴동산 가정으로부터 그 자연세계를 어디에 가더라도 환영받을 수 있는 탄생을 다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참부모님 천주승리 축하선포(1999.6.14)는 3억6천만쌍의 대전환 시기를 중심삼고 사탄을 굴복했다는 선포로서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혈통 근절의 식(1999.5.14)을 한 터전 위에서, 그리고 참부모님 동서양(지구성) 승리축하 선포 대회(1999.5.30)를 마친 기준을 가지고 선포한 것이다. 또한 참어머님께서 80개 도시에서 순회강연을 통해 승리의 패권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책임을 공인하는 자리에서 아담 앞에 실수한 해와가 복귀된 가치로서 같은 자리에 입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기 위해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팔정식(1989년 8월 31일)

미국 알래스카에 파견된 일본 축복가정들이 해양섭리를 놓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식구들의 절대적 신앙의 조건을 바탕으로 1989년 8월 31일 참부모님께서 미국 알래스카에서 팔정식을 선포하셨다.

인류조상의 타락으로 인간이 사탄의 핏줄을 이어받아 사탄주관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사명은 아담의 실패를 복귀하고 창조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죄 없는 아담으로 오신 메시아는 종의 종으로부터 종·

양자·서자·직계자녀·부부·부모를 거쳐, 하나님의 8단계를 거쳐 하늘부모님의 심정권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종적 8단계이다. 그리고 횡적으로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하나님까지 8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것을 묶어서 정착했음을 선포한 것이 팔정식이며, 이것을 1989년 8월 31일 알래스카에서 선포한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 앞에 탕감이 필요 없는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 그 말은 참부모님이 가시는 길이나 축복가정들이 가는 데에는 핏박시대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 다음날 9월 1일 천부주의 선포를 하셨다.

### 천일국 최대 승리기념일 선포(2011년 12월 11~12일)

참부모님께서는 2011년 12월 11일과 12일(천 11.17~18) 천정궁과 거문도 해양천정궁에서 '천일국 최대 승리기념일 선포'를 하셨다. 160여 명이 참석한 천정궁 혼독회에서 참부모가 땅 위의 주인이신 창조주 본연의 기준을 완성·완결·완료하였음을 선언하셨다. 말씀선집 36권 160페이지 혼독한 것을 기록하시며 '선포문, 천일국 최대 승리기념일'이라 적으셨다. 그리고 '영원승리 기록 완성되나이다. 완결 완료로 끝을 이루게 되니라! 아주.'라고 기록하셨다. 참석자들에게도 이날 혼독한 말씀선집 권수와 페이지를 일기에 기록하라고 하셨다. 혼독회 후 거문도를 방문하신 참아버님께서는 다음 날(양 12.12) 해양천정궁에서 혼독회를 주관하셨다. 혼독회가 진행되던 중에 '참하나님 참부모님 일체 완료, 하나님이 완성·완결·완료, 아주!'라고 기록하셨다. 그리고 '시봉 천국 되다'를 기록하신 후 '축 아주'와 함께 사인을 하고 천력 날짜를 적으셨다. 이 선포는 이틀에 걸쳐 되었지만 참부모님께서는 하나임을 말씀하셨다.

이에 앞서 2011년 12월 1일(천 11.7) 거문도 해양천정궁 혼독회에서 ‘최후의 훈령’ 말씀이 있었는데, ‘섭리적 최종목적 되다’ 선포문 위에 볼펜으로 ‘최후의 훈령(천력 11월 7일), 아주(억만세), 말씀선집 35권 156페이지 혈통의 전환 하 여라!’라고 기록하셨다.

### 천승일(1976년 10월 4일)

1976년 10월 4일 뉴욕 벨베디아수련소에서 9월 16일 워싱턴대회 승리기념 집회의 승리 위에 참부모님께서 천승일(天勝日)을 선포하셨다. 1974년 9월 18일 매디슨스퀘어가든 대회와 1976년 6월 1일 양키스타디움 대회를 승리적으로 마치고 워싱턴 대회를 기점으로 미국의 완성시대를 선포하셨다.

30만여 명이 참석한 워싱턴모뉴먼트 대회에서 참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미국’이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은 이 나라에 새로운 계시를 전하기 위해, 특별히 퇴폐적인 미국 청년들을 구하고 미래의 지도자가 될 젊은이들을 인도 하라고 나를 보내셨다.”고 선포하셨다.

또한 역사의 산물인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통일교가 하나되어 세계의 통일된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3대 종교의 기반인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한국이 하나되어 세계평화와 통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하늘 부모님의 복귀섭리에 워싱턴 대회는 역사적인 대회이며 인류와 모든 인종을 대표하는 30만여 명의 관중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뜻을 중심삼고 참부모님과 하나되었다는 조건을 세울 수 있었다.

2천년 전 하늘부모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가정과 종족, 나아가 유대교와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반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하여

로마에 들어가 하늘부모님의 천국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린 것이다. 참부모님께서는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에서 아벨국가이자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미국을 통해 하늘부모님과 예수님을 해방하신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을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참부모님께서 하늘부모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승리의 기반을 마련하심으로써 1976년 10월 4일 천승일을 선포하셨다.

### 출감기념일(북한 홍남감옥 1950.10.14, 댄버리 1985.8.20)

참아버님께서는 온갖 시련과 고통은 참아버님을 복귀되고 완성된 아담의 위치에 세우시기 위한 재료들이라 생각하시며 하늘부모님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옥중 고문과 강제노동을 통하여 탕감복귀의 승리적 노정을 걸으시며 충효의 꽃대를 세우셨다.

참아버님께서는 예수님이 유대교와 나라의 박해 속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하셨으나, 1950년 10월 14일 홍남감옥에서 출감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탕감복귀하시고 영육 중심한 새출발을 하셨으며 잃어버린 기독교 기반을 탕감복귀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참아버님께서는 1985년 8월 20일 세계적인 최후의 댄버리교도소의 고난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심으로써 하늘부모님의 세계적인 탕감복귀섭리를 완성시키시는 대 역사를 이루셨다. 서구 기독교문명과 동양문명을 대표한 참아버님이 마치 장자와 차자가 자리바꿈을 하는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셨다.

참아버님은 여섯 번의 옥고를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을 안 하셨다. 만민의 죄와 괴로움을 홀로 짊어지시고 옥중생활을 천국생활같이 생각하시며



참사랑으로 모든 사망권을 다 극복하고 소화하여 지옥에서부터 영계까지 사랑의 고속도로를 만드셨다.

### 총해원추석절(2000년 천력 8월 15일)

2000년 총해원추석절 기념식이 2000년 9월 12일(천력 8월 15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미국 뉴욕 이스트가든에서 참자녀님들과 교회 지도자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2001년 10월 1일 추석에는 파주 원전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참아버님 성화 이후에는 참어머님께서 해마다 천정궁에서 추석 행사를 치르셨다.

2000년 총해원추석절에는 전면에 준비된 단상 우측에는 성초 7개와 성주가 놓여 있었다. 성주는 큰 잔으로 4잔이 마름모꼴로 놓여 있었고 그 사이에 작은 잔으로 4잔씩 16잔, 모두 20잔이 준비되어 있었다. 참아버님은 촛불 점화 후 이날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셨다.

참아버님께서는 “선생님이 80세에 처음 맞는 추석에 조상들을 해방해 줘야 된다.”면서 “사탄세계에서 보면 맨 마지막으로 나온 하늘의 사람이자 아벨 중에 장자권·부모권·왕권을 가진 맨 마지막 사람인 재림주가 모든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영계로부터 육계까지 무덤 같은 것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날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셨다.

“원래는 자기 조상들을 숭배하고, 그래서 조상의 운세를 받아서 그것을 횡적으로 펴야 할 것이 창조이상입니다. 이것이 타락 때문에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생겨났습니다. 평면적 입장의 뚜껑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끝날에는 모

든 무덤이 열리고 시체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해방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와 같은 식입니다. 영계가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지옥도 상·중·하로 되어 있어서 횡적으로 전부 갈라져 있는데 타락함으로써 담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전부 철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80세에 처음 맞는 추석에 이 전체, 조상들을 해방해 주어야 됩니다.” (332-119, 2000.09.12)

“참부모가 와서 사탄세계를 탕감한 뒤 돌아들어와 경계선이 없는 중앙에 서서, 전체의 중심에 서서 개인 완성권과 더불어 가정·종족·민족 완성, 동서남북 주체적 세계의 완성권을 전부 열어 줘야 합니다. 이 땅 위에서 살다 간 영계의 모든 사람들이 무덤같이 전부 덮여 있어서 마음대로 왕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 주는 식이 추석절 기념식입니다.” (332-122, 2000.09.12)

그리고 참아버님께서는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 그리고 사람들이 묻혀 있는 무덤, 각 개개인이 생활하던 곳에 만들어진 경계선을 완전히 터 버려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도 못하고 승리한 참부모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강조하셨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계와 육계의 동화시대로 들어가게 되며, 앞으로 악한 사람들과 뜻에 어긋난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서서히 하늘이 정리해 나가는 직접적 탕감시대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다.

해마다 추석절 행사를 주관해 오신 참어머님께서는 천일국 7년 천력 8월 15일(양 2019.9.13) 추석절 행사를 청심평화월드센터 광장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하셨다.



## 명절과 기념일 진행 요령

### 준비와 지침

축복가정들은 기념의례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과 몸을 한데 모아 준비하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 기념의례에 참여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기념행사를 거행하기 위해 최소한 3일간의 내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기념행사를 거행한 후에도 3일간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생활해야 한다. 기념행사 당일을 포함해 7일간은 정성을 들이는 마음으로 기념의례 주간을 잘 보내야 한다.

명절 하루 전에는 기도의 단을 쌓으며 당일에는 화내는 것을 금하고 세속적인 일은 삼가며 순수하게 정성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8대 명절 및 주요 기념식은 규모와 범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협회본부 주관 기념식, 교구 및 교회 주관 기념식, 가정 기념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시간과 장소, 복장

참부모님을 모시고 행하는 경배식은 오전 7시에 행한다. 협회본부에서 주관하는 8대 명절 및 주요 기념식과 경축 문화행사는 당일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특별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단 새해 원단을 맞이하는 하늘부모님의 날 0시 집회는 0시 정각에 개최한다.

협회본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식의 장소는 협회에서 선정하는 장소이며, 교구·교회가 선정하는 장소는 성전이 되고, 가정의 경우 안방이나 거실을 3일 전부터 깨끗이 청소하여 성별의 기준을 세운다. 협회본부 기념식의 경우 남성은 검은색 혹은 청색 계통의 정장을 착용하고, 여성은 흰색 혹은 미색 계통의 정장을 착용한다. 하늘부모님의 날 0시 집회에는 정장을 착용한다. 준비물로는 현수막, 팸플릿, 초와 촛대 2개, 라이터, 꽃다발 2개, 케이크 등을 들 수 있다.

## 명절과 기념일 상차리기

8대 명절 및 주요 기념식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봉헌하는 상을 차린다. 상은 음식의 종류에 따라 여유롭게 진설할 수 있는 크기로 준비하며, 상을 덮을 천은 흰색 혹은 미색으로 준비하여 바닥까지 드리우도록 한다.

음식을 진설하는 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참부모님이 좌정하신 앞쪽은 참부모님을 위한 식사로 밥, 국, 떡, 생선, 야채, 전, 대합젓, 삶은 계란 등을 진설한다.

다음 줄은 신선로, 갈비찜, 수정과, 식혜 등을 진설한다. 그 외에도 2마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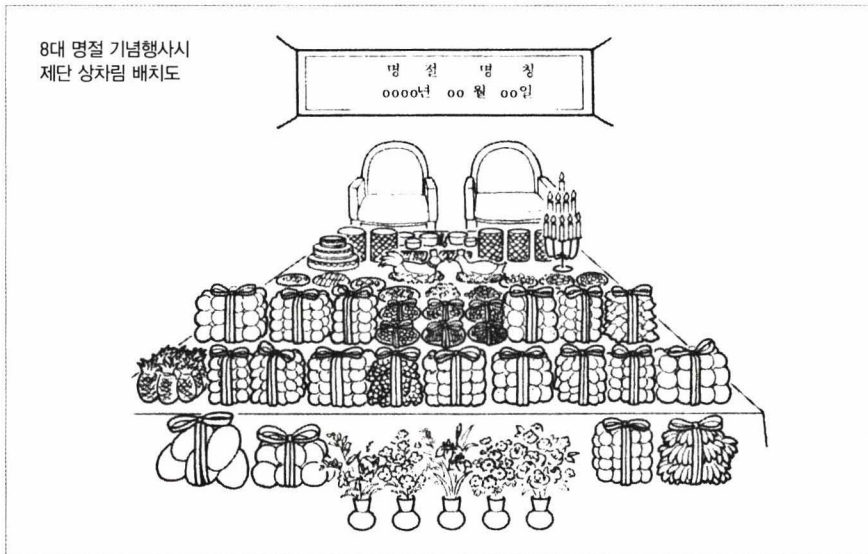
요리한 닭을 각각 푸른 리본과 분홍 리본을 달아 서로 마주보게 진설한다.

과일의 경우 생과일, 견과류(밤, 은행, 잣, 호도) 등 모든 종류를 준비한다. 천정궁인 경우 섭리적 숫자에 맞춰 21인치(53.34센치미터 그릇 제외) 높이로 쌓아올린다. 한과도 같은 높이로 쌓는다. 수박, 감귤, 멜론 등 일부 과일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과자의 경우 7가지의 비스킷과 크래커, 갑에 든 건포도, 갑에 든 박하껌, 비닐봉지사탕 등을 과일과 같이 쌓아 올린다. 상 위에는 컵, 숟가락, 젓가락, 냅킨 등을 두 세트 갖추어 놓는다. 모든 음식들은 계절이나 용도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기원절 선포 이후 참어머님을 중심으로 천정궁에서의 기념행사 상차림은 주로 과일동산으로 쌓아 올려서 진행하고 있다.

## 1) 상차림

### (1) 제1안(천정궁 주요명절 시 참조)





## (2) 제2안(제1안을 축소함)



### 명절 기념행사 식순(천정궁)

- 묵상 및 보고
- 참부모님, 참자녀님 입장
- 개회선언
- 천일국가 제창
- 경배 — 영육계 참가정 대표 경배(참자녀님, 손주님)
  - 세계 선교사 대표 경배(한·미·일 포함한 13개 대륙 대표자)
  - 전세계 영육계 축복가정 경배
- 가정맹세 제창
- 보고기도
- 케이크 커팅

- 성찬
- 말씀 훈독
- 말씀
- 억만세 삼창
- 폐회 선언

각급 교회에서는 이에 준하여 식순을 정하여 진행한다.

## 성화절 기념일

참아버님 천주성화절 행사는 보통 오전 10시에 행한다. 협회본부에서 주관하는 추모식의 장소는 협회에서 선정하는 장소에서 하며, 교구에서 주관하는 추모식의 경우 교구 성전에서 행한다.

상차림은 참아버님께서 성화하신 뒤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항상 참어머님과 함께 동행동사하시므로 평상시 8대 명절과 같이 최대의 정성을 들여 준비한다.

추모식에 참석할 때의 복장은 남성은 검은색 계통의 정장에 흰 넥타이를 착용하고 여성은 흰색 혹은 미색 계통의 정장을 착용한다.

### 1) 성화절 식순

- 묵상
- 참부모님, 참자녀님 입장
- 개회선언

- 천일국가 제창
- 보고기도
- 헌화
- 생애 및 업적 보고
- 추모사
- 추모시 낭송
- 말씀
- 문화행사(중창, 독창, 합창, 뮤지컬 갈라쇼 등)
- 억만세 삼창
- 폐회선언

## 섭리 공헌자에 대한 협회 주관 특별추모식

특별 추모식은 섭리 공헌자(충부님, 충모님, 대형님, 대모님, 유효원 선생 등) 추모식이 있다. 섭리 공헌자에 대한 추모식은 보통 오후 7시에 행한다. 협회본부에서 주관하는 추모식 장소는 협회에서 선정하는 장소에서 행한다.

### 1) 상차림

상차림은 협회본부의 상차림을 참조하여 정성껏 준비한다. 섭리적으로 의미 있는 중요한 수치(3, 7, 12 등)를 기준으로 한다. 상을 차릴 때 사용하는 그릇은 별도로 보관하며 행사 때만 사용하도록 한다. 케이크나 상에 올렸던 음식물은 식을 마치고 그날 행사 잔치 음식으로 먹거나 행사에 참석한 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

추모식에 참석할 때의 복장은 남성은 검은색 계통의 정장에 흰 넥타이를 착용하고 여성은 흰색 혹은 미색 계통의 정장을 착용한다.

충부님, 충모님, 대모님, 대형님 등의 섭리 공헌자는 협회 주관의 특별 추모식으로 한다.

## 2) 추모식 식순

- 묵상
- 개회선언
- 천일국가 제창
- 경배
- 가정맹세 제창
- 보고기도
- 각계 대표의 헌배
- hymn
- 회고담
- 추모사
- 축도
- 억만세 삼창(생략 가능)
- 폐회선언

## 교구와 교회에서 주관하는 8대 명절 및 주요 행사

교구 및 교회, 가정 기념식의 경우 협회본부 기념식에 준하여 사정과 규모

에 맞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가능하면 많은 분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진행한다.

단상에는 두 개의 성초 촛대를 참부모님 존영을 중심으로 양쪽에 세운다. 성초는 각 행사 때마다 새것을 준비하여 전에 사용하던 성초에서 번식시켜서 사용한다. 방석이나 의자는 상 뒤편에 자리하게 하고, 참부모님의 존영은 방석이나 의자 바로 뒤에 있는 벽에 걸거나 준비한 의자 위에 세워 놓는다.

상차림은 협회본부의 상차림을 참조하여 정성껏 준비한다. 섭리적으로 의미 있는 중요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좋다. 예를 들면 3수, 7수, 12수 등을 기준으로 음식과 과일과 과자 등을 준비할 수 있다. 상을 차릴 때 사용하는 그릇은 별도로 보관하며 행사 때만 사용하도록 한다.

참부모님께 올릴 진지는 참부모님께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심정으로 준비하여 상 위에 차려 놓는다. 케이크나 상에 올렸던 음식물은 식을 마치고 그날 행사 잔치 음식으로 먹거나 행사에 참석한 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 행사 후 화동회 등 축하모임을 갖는 것도 좋다.

식순은 다음과 같다.

- 묵상
- 개회선언
- 천일국가 제창
- 경배
- 가정맹세 제창
- 보고기도
- 케이크 커팅
- 말씀 훈독



- 축하
- 말씀
- 억만세 삼창
- 폐회선언

## 일반 기념행사

일반 기념행사는 각 가정 축복기념일, 섬리기관 창립일, 주요 섬리대회 승리선포일, 조상 추모일, 생일기념일 기타 섬리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연관된 기관이나 각 가정에서 실시한다.

### 1) 축복기념일

축복가정들이 축복의 의의와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한없는 은사에 감사를 드리고 참자녀·참부부·참부모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소중한 날이다.

하늘부모님의 참사랑을 중심하고 3대 축복을 실현하여 이상가정을 이룸으로써 천일국 창건을 위한 종족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축복 동기 가족이 상호협력하여 애경사에 적극 참여하고 2세, 3세들의 진로를 위한 장학회 활동, 천일국 창건을 위한 제안 등을 한다.

식순은 다음과 같다.

- 묵상
- 개회선언
- 천일국가 제창

- 경배
- 가정맹세 제창
- 보고기도
- 케이크 커팅
- 말씀 훈독
- 기념사
- 축가
- 억만세 삼창
- 폐회선언

## 2) 섬리기관, 기업체 창립기념일

섬리기관과 기업체의 창립 취지와 목적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다짐하며 조직원의 화합과 단합을 통하여 새롭게 출발할 것을 다짐한다. 다음은 창립기념식 순서이다.

- 묵상
- 개회선언
- 경배
- 천일국가 제창
- 가정맹세 제창(생략 가능)
- 보고기도
- 케이크 커팅
- 말씀 훈독
- 기념사

- 축사(또는 격려사)
- 억만세 삼창
- 폐회선언

### 3) 축복가정 자녀의 생일기념식

생일기념식은 하늘부모님께서 축복가정 자녀들을 지상에 보내주시고 항상 보호하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의례이다. 축복가정 자녀는 부모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자매의 심정을 체휼하며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인격적 성장을 체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매년 맞이하는 생일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가족 구성원들과 더불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와 가치기준을 재확립하는 시간이 된다.

생일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항상 자녀와 함께해 주시고, 다음 생일이 돌아올 때까지 하늘의 보호권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다.

기념식은 오전 7시에 갖는 것이 좋다. 부모와 자녀는 모두 목욕재계하고 성별된 가운데 깨끗한 옷을 입고 의식에 임한다. 부모는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정성껏 생일상을 마련한다. 상에는 성초와 케이크, 다과, 과일 등 음식과 선물을 준비한다. 상 뒤편으로 부모와 생일을 맞이한 자녀를 위한 의자나 방석을 마련한다. 생일기념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성초 점화
- 묵도
- 경배
- 가정맹세 제창

- 보고기도
- 자녀 절 1배
- 부모 음식(작은 떡), 선물하사
- 케이크 커팅
- 사진촬영

#### 4) 축복가정 조상 추모식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과 조상에 대한 감사와 모심의 심정으로 정성을 다 하여 준비해야 한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그리고 조상을 평안히 모시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며, 후손들 간에 참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성화한 축복가정 조상에 대한 추모의례로서, 돌아가신 날 0시나 일몰 후 7시에 행한다. 장소는 가정 또는 원전에서 한다.

추모식 참석 복장은 남성은 검은색 계통의 정장을 하고 여성은 흰색 혹은 미색 계통의 정장을 착용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깨끗한 옷을 착용해야 한다.

위패를 구입하고 가로 6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의 백색 한지를 준비한다. 위패가 없으면 영정 사진 우측 측면에 붙일 수 있다.

종이 상단 중앙에 가로로 ○○축복가정이라고 두 줄로 쓰고, 바로 그 밑 중앙에서 부터 세로로 ○○○(존함) ○○(부친, 혹은 모친) 추모예배라 쓴다. 두 분을 함께 모실 경우 추모예배를 두 분 존함 밑 중앙 부분에 쓴다. 좌편 하단 측면에 천일국 ○○년 천력 ○○월 ○○일이라 쓴다. 위패는 단 최상단 중앙에 모신다.

상차림의 방법은 모시는 선영은 복이고 선영을 바라보는 후손은 남이 되며

후손의 오른쪽은 동, 후손의 왼쪽은 서가 된다. 추모하는 기본원칙은 살아 계실 때와 똑같이 모신다. 원리적으로 하늘부모님은 북쪽이며, 남자는 오른쪽이고 여자는 왼쪽이 기본적 위치이다. 후손이 바라보고 모시는 입장에서 남자 조상은 서편(후손의 왼쪽), 여자 조상은 동편(후손의 오른쪽)이다.

메(밥)는 동편, 갱(국)은 서편이며 수저는 갱 다음 서편에 놓는다. 밥과 국, 국수와 송늬 등은 각각 따로 담아 제1열에 올린다. 여러 가지(7색) 반찬은 한 접시에 담는다. 그러나 배추김치와 무김치, 물김치 등은 따로 담아 제2열 중앙 부분에 놓고 어, 육, 편(떡)을 역시 제2열 좌우에 놓는다. 이때 국수는 서편, 떡은 동편에 놓는다.

생선은 동편이고 고기는 서편에 놓는다. 머리와 꼬리가 있는 음식은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을 향한다. 어적, 생선포, 계적 등은 등이 위로 가고 누어 놓을 때는 배가 선영 쪽으로 가게 한다. 전(부침)과 적(구운 것), 찜, 포와 식혜, 간장과 탕 등은 제3열에 놓는다. 포는 서편에, 식혜는 동편에 놓는다.

생과일류는 짝수로 준비하여 제4열에, 마른 과일과 인조 과자류는 제5열에 놓는다. 과일 종류가 많지 않을 때에는 4열과 5열을 한 열로 조정하여 놓는다. 과일은 붉은색 과일은 동쪽, 흰색 과일은 서쪽에 놓는다. 대추는 동쪽에 놓고, 밤은 서쪽에 놓는다. 초대는 단 앞 좌우 양쪽에 놓으며 화환은 단 좌우 측면에 보기 좋게 놓는다.

절은 살아 계실 때와 똑같이 1배를 한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고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다음 오른쪽 무릎을 꿇으며 허리를 굽혀 머리가 손등 위에 가까이 닿도록 공손히 절을 한다. 일어설 때는 오른발을 일으키고 다음 왼발을 세워 일어난 다음 양손을 잡아 하단 복부에 두고 허리를 약간 굽혀 인사를 하고 뒤로 물러선다. 절은 계대별, 연령별, 남녀별 등으로 구분하여 드린다. 상



차림은 협회본부 내용을 참조한다. 추모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묵상

○ 개회선언

○ 천일국 국가 제창

○ 경배

○ 가정맹세 제창

○ 보고기도

○ 가족 및 친지 헌배

— 가족 전체가 계대별, 가족별로 잘 정돈하여 선영께 절한다.

— 가족대표 부부가 먼저 부모 다음 사람(집사)의 도움을 받아 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 계대별, 가족별로 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여기서도 부부가 함께 한다.

○ 흠향

— 가족대표가 진지그릇 뚜껑을 열고 손가락을 진지그릇 중앙에 꽂고 끝은 서쪽으로 향하게 한다. 젓가락은 바로잡고 진설한 모든 반찬 위를 접촉한 후 제자리에 놓는다.

— 모든 참석자는 4분 정도 선영께서 흠향하시도록 묵도한다.

— 가족대표와 집사는 국그릇을 거둔 뒤 송늬를 올린다.

— 수저를 정리해 제자리에 놓고 진지그릇 뚜껑을 덮는다.

○ 회고담

○ 말씀 훈독

○ 축도

○ 선영께 전체 일배

○ 폐회선언

○ 식사 및 담소

#### 편찬 자문위원

문선진(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부회장)

문연아(효정세계평화재단 이사장)

문훈숙(유니버설문화재단 이사장)

#### 편찬위원

정원주(총재비서실 실장)

윤영호(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 사무총장)

사광기(말씀편찬위원회 위원장)

진성배(효정학술원 원장)

김항제(천일국학술원 공동원장)

김진춘(천일국학술원 공동원장)

윤진현(선학역사편찬원 원장)

이경현(천원사 대표이사)

도현섭(선학UP대학원대학교 부총장)

#### 편집위원

권오문 최범호 송철의 김순민 남궁형욱 차연주

최창우 조동민 남궁인성 윤예선 김민지 임현진

윤도영 안연희 김화슬 김만식 이선옥 고미야마

천지인참부모 성탄 100주년·천주성혼 60주년 기념문집

## 축복가정 예법과 의례

인쇄일 2020년 1월 20일

발행일 2020년 1월 30일

편저자 천지인참부모 성탄 100주년·천주성혼 60주년 기념문집 편찬위원회

발행처 천원사

신고번호 제302-1961-000002호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63길 3(청파동1가)

대표전화 02-701-0110

팩스 02-701-1991

가격 18,000 원

ISBN 978-89-7132-758-6 04230

978-89-7132-743-2 (전24권)

